



2026 Vol.2

The Summer

Art · Music · Dance · Drama & Film



눈부신 햇살 아래 녹음이 짙어가는 한여름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학교는 학생들의 뜨거운 열기로 차오르고 있습니다.

낮 동안 쏟아부은 청춘의 땀방울과 캄캄한 밤을 밝히는 치열한 고민들. 우리에게 이 계절은 단순한 여름이 아니라, 푸르게 익어가는 하나의 '꿈'입니다. 저마다의 열정으로 눈부시게 타오르는 우리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기획·제작 | 키온 제작부 김시온(무용과 47기)
촬영 | 키온 제작부 손하율(미술과 46기)
키온 제작부 서지우(연극영화과 46기)

출연 | 강서해, 김태성, 홍서연, 이하솔

Q. 우리 학교에서 뜨겁게 불태우며 보낸 순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작년 학기 말이 떠오르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을 앞두고 있다는 긴장감과 동시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때였어요. 다움(학생자치회)과 키온(학생 홍보대사) 행사, 정기연주회와 찬양제 준비로 바쁜 연말을 보내면서도, 저 자신을 위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좋을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학 시간에 모의수업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작품의 다양한 해설을 찾아 공부하고, 수업하는 제 모습을 녹화하며 서툴게나마 온전한 제 수업을 만들어보려 노력했습니다. 막연하게 품었던 '교사'라는 꿈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져 가장 설레이고 뜨거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네요.



The Summer



Q. 다가오는 여름은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가요?

A. 이번 여름은 입시가 녀 달도 채 남지 않은 제게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단기간 에너지를 쏟는 것에 능할 뿐, 규칙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요. 스스로 세운 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날도 많고, 그런 제 자신에게 많이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공부하고, 연습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도전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꼭 필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이 지날 즈음에는, 꾸준함이라는 힘을 얻어 나 자신을 조금 더 믿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Department of Music

Q. 우리 학교에서 뜨겁게 불태우며 보낸 순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계원예고에 입학한 후로 학교에서 보내는 모든 순간을 뜨겁게 불태우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한 순간을 꼽아 보자면 가장 최근에 선보인 연극제작 실습 작품을 준비하던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러시아 희곡 '밑바닥에서'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작품이었어요.

해가 뜨기 시작하는 아침부터 해가 지는 어두운 밤까지 선생님, 동기들과 함께 땀 흘린 그 시간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특히 막이 내렸을 때 서로를 껴안고 울며 격려했던 순간은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어요. 그때의 기억 덕분에 저는 앞으로도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The Summer

Q. 다가오는 여름은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가요?

A. 입학 후 맞이하는 두 번째 여름이라 저에게는 더욱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월에 있을 정기공연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배워온 것들을 마음껏 선보이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하고싶은 말이 있는데... 지금까지 멋진 무대를 올릴 수 있었던 건 존재만으로 의지가 되는 동기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공연 역시 서로를 응원하고 뜨겁게 힘을 합쳐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희 46기의 정기공연, 많이 기대해 주세요!



Q. 우리 학교에서 뜨겁게 불태우며 보낸 순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무용과로서 무용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무용제를 위해 수 개월 동기들과 호흡을 맞추고 땀 흘렸던 순간이 그 자체로 가장 뜨겁게 빛났던 것 같습니다. 일찍이 홀에 도착해 동선을 맞춰보고, 부족한 부분을 반복해 연습하다보면 힘에 부치기도 했지만, 꿈을 향한 의지를 되새기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 관객들의 함성과 박수를 받을 때면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으로 돌아오 거든요. 무용제뿐만 아니라 외부 공연이나 콩쿠르 작품들을 완성하기 위해 쏟았던 모든 시간과 노력들이 다 기억에 남습니다. 매 순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어요.



The Summer



Q. 다가오는 여름은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가요?

A. 무엇보다 무용 실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고 표현력을 길러 저의 가능성을 넓히고 싶어요. 새로운 움직임 배워보기도 하고, 평소에 시도하지 못했던 안무 스타일에도 용기를 내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여름을 보내고 싶어요.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긴장감 속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주어지는 기회를 마다하지 않고, 무대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무대 위에서 감동을 전하는 무용수'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Q. 우리 학교에서 뜨겁게 불태우며 보낸 순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올해 3월, 새학기가 시작되고 친구들과 학교 생활을 시작했던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함께 수업을 듣고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점차 친해질 수 있었어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덕분에 진심을 다해 응원할 수 있고 또 기댈 수 있어서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꿈을 위해 각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자연스레 자극을 받게 되더라고요.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또 저 역시 친구들에게 좋은 자극을 주기 위해 매 수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성실하게 학교 생활에 임했습니다.

The Summer

Q. 다가오는 여름은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가요?

A. 먼저 한 학기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맘껏 풀고 싶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이 참 많았는데요. 여러 미술 전시회를 찾아 다니며 다채로운 표현 방법과 색감, 구도 등을 배우고, 제 작품에 직접 적용해 보고도 싶습니다.

또 방학 동안에는 계획표를 쓰며 꾸준히 실천에 옮기고 싶어요. 날마다 그림 연습 시간과 공부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알찬 여름방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매일같이 드로잉 연습을 하고,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실기 실력을 키우고 돌아오겠습니다.





계원예술고등학교
KAYWON HIGH SCHOOL OF ARTS